

素隱 朴洪奎 教授의 學者됨과 學問

朴 琮 炫

I

대저 한 사람의 사람됨이 잘 드러나는 것은 어떤 큰 변화나 사건들이 있을 때이다. 그런데 素隱선생에게 그의 색다른 면모를 드러내 보일 만한 기회가 될 만한 변화나 사건이 거의 없었고, 또 앞으로도 적어도 自意에 의해서는 좀처럼 생길 것 같지가 않다. 참으로 순수한 의미에 있어서의 학문과 강의 이외의 것들에 있어서 선생의 어떤 색다른 면모를 찾아 본다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담배뿐만 아니라 술과의 인연도 지극히 먼 선생인데다 그 흔한 듯 싶은 감투 한번 쓴 일이 없으니 말이다. 따라서 선생의 인간적인 면모를 더듬는 것은 별수 없이 그의 강의와 철학함의 언저리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1955년의 봄 학기에 필자는 초급 불어를 이룬바 도강으로 들어 불 양으로 배정된 강의실을 시간마다 빠짐없이 들락거렸다. 그러나 담당 교수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고, 수강한 사람들은 매번 허탕치곤 했다. 그러다가 개강 두 달쯤 되었을 무렵에야 드디어 나타난 교수가 바로 素隱선생이었다. 그러나 놀랄 일은 오히려 그 다음에 일어났다. 모처럼 모습을 보이고 첫 강의를 했던 선생은 다시 나타나는 일이 없었다. 여러 주일이 지나 두번째로 나타났을 때는 바로 학기말 시험이었고, 동시에 종강이었다. 하기가 당시의 대학강의는 개강 후 한 달쯤이나 지나 늦으막히 시작했다가 또 일찌감치 끝나버리는 데다 결강도 어지간히 잦은 게 대부분의 경우들이었지만, 그중에서도 선생의 경우는 별나다 싶었다. 그 뒤에 몇년이 지나 군대까지 갔다 온 필자는 불문과에서 철학과로 科 소속까지 달리 한——연도는 잘 모르겠으나——선생의 플라톤 강독을 수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어찌된 일인가! 그 지나간 3시간의 속강을 교박 채우면서 이제는 오히려 학생들을 다그치는게 아닌가! 그 무렵 필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강의에서 자주 빠져 영락없이 턱걸이 학점을 받고 말았다. 훗날 어느 기회인가 그 불어시간 이야기를 하다가 언뜻 그 연유를 듣게 되었다. 선생은 6·25 사변때 남북 행렬의 차에서 용하게 도망을 했는데, 그때의 충격이 밤마다 악몽으로 되살아나는 통에 몇년에 걸쳐 하루 두시간 정도의 수면밖에 취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였다. 말하자면 그때가 수면부족으로 거의 死穢를 헤메이던 무렵이었던 것 같다.

선생이 건강을 회복한 것은 아마도 산보와 등산에 의해서였던 것 같다. 어느 날인가 週中에 선생을 뵈었더니, 머리와 쇄타에 마른 솔잎이 몇 개씩이나 그대로 있어서 등산하셨던

길인지를 여쭙더니 일주일에 두번씩 산에 오른다는 대답이었다. 육신을 피로하게 하면 잠을 곤하게 잘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교수로서의 선생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것은 아무래도 대학원 강의에서인 것 같다. 선생의 대학원 강의는 으레 덕에서 했는데——요즘엔 박사과정만——대개의 경우 학생들이 몇 번이고 그만 하자고 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선생의 강의를 처음으로 듣는 사람들은 대개 약간의 거부 반응을 느끼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의를 듣다 보면, 차츰 古典의 진수도 약간씩 맛보게 되고 어느 결엔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함께 몰입해 들어가게 마련이다. 그건 무엇보다도 素隱先生 자신이 가끔 沒我的 경지에서 불현듯 고전의 眞髓에 접하여 그걸 불쑥불쑥 말하거나, 아니면 듣는 사람이 미처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한꺼번에 마치 붓물이 터진듯 쏟아 놓기 때문이다. 학술적인 대화를 하다가도 가끔 선생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이 학문적인 沒我的 경지야말로 선생의 큰 매력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학자로서의 이 沒我的 비릇이 더러는 선생을 망신스럽게 만드는 일도 있는 것 같다. 언젠가 한국 철학회의 오후 발표장에서 선생의 발표를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참으로 민망스러운 광경을 보았다. 허리띠를 풀고 바지의 지퍼를 반쯤 내려 놓으신 채 선생은 일사 천리로 자신의 발표를 하고 있었다. 아마 점심 시간에 허리가 졸려 바지의 지퍼를 풀어 놓았던 것을 잊은채로 등단하였던 것 같다.

선생은 어떤 의미에서 지난 날의 이름난 학자들의 傳記 속에서나 가끔 발견하게 될직한 그러한 학자 생활을 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바쁘게 돌아가던, 그래서 설치지 않아도 될 사람들조차도 행여 빠질세라 그 바쁜 대열속에 애써 끼어들던 70년대의 대학 풍토에도 불구하고 선생은 오로지 학문에만 골몰하는 학자로서의 자신의 常軌를 한 발짝도 벗어나는 일이 없었다. 학자의 모습이 천편일률적으로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꼭 그래야만 될 사람은 그래야 학문 풍토가 건전하다. 적어도 素隱先生은 고전이나 순수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누어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살아 있는 본보기이다

II

누가 素隱先生더러 학문 활동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인가고 묻는다면 그 중의 하나로 아마 선생은 글쓰는 것을 틀림 없이 꼽을 것 같다. 선생은 잡문 하나 쓴 일도 없지만 7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논문 한 편을 쓴 일도 없는 것 같다. 교수가 논문을 쓴다는 것이 오늘날 일종의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선생의 논문들이 그나마 몇 편 햇빛을 보게 되었는데, 이는 모두가 75년 이후의 일들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선생의 학문적인 참 경지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님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마지못하여 대충 꾸려 놓은 것임을 선생은 자주 실토했다. 일정한 시기를 정해 놓고 그때마다 한 편씩의 논문을 발표

해야 된다는 확일적이고 양산 위주적인 제도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아마 교수로서의 최소한의 조건을 생각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그런 모양인데, 이 최소 조치가 선생의 경우에는 여간 성가신 게 아닌 모양이다.

오래 전에 선생이 별로 걱정할 정도의 것이 아닌 질환으로 대학 병원엘 입원하셨다가에 필자는 문병을 간 처지에 “선생님, 잘 입원하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술 구상이나 하시죠” 했더니 선생은 묵묵 부답이고 옆의 사모님이 같이 거든다. 그런 일이 있는지 오래 뒤에 역시 저술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언뜻 선생이 구상하는 필생의 저술 내용이 희랍 철학을 출발점으로 한 存在論 중심의 形而上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선생이 적어도 저술과 관련해서 가지는 마음가짐은 완벽주의이다. 언젠가 선생은 파르메니데스에 있어서만도 문제 되는 게, 내 기억으로 정확히는 않으나, 일흔 몇 가지인지 아흔 몇 가지인지가 되는데, 어떻게 책쓰기가 쉽겠냐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선생은 30년이 넘도록 강독 위주의 강의를 해왔다. 그 동안에 제자들과 더불어 읽은 고전들만도 수없이 많은 데다 어떤 것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되풀이하여 읽어 왔다. 물론 초기에는 古典을 익히는 작업이 위주였겠으나 오래 전부터 선생의 고전 해석은 놀라운 一家 見을 이루고 있음을 번번히 겪게 되었거니와, 고전과 관련된 선생의 思惟는 이제 여물대로 여문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고전의 핵심을 그처럼 시원스럽게 척질하고 번득이는 炯眼을 보일리가 없겠기 때문이다.

멀지 않아 선생의 思惟가 어떤 형태로든 그 결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것이라는 우리 모두의 기대는 결코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선생의 학문을 知悉하지 못하는 후학의 처지에, 선생이 이룬 학문의 경지를 어찌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만, 적어도 그 결실은 선생을 알고 선생의 학자됨과 학문에 접해온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망임을 선생계신 아시고 계실 것이다.